

『열하일기』 이본(異本)의 재검토

— 초고본 계열 필사본을 중심으로 —

김 명 호*

국문초록

이 글은 단국대 연민문고에 소장된 『열하일기』 필사본들을 고찰한 것이다. 이 필사본들은 대개 ‘초고본 계열’에 속하는 가장 초기의 이본들로서, 그 중에는 공개된 적이 없는 귀중본이 적지 않다. 따라서 『열하일기』 이본 연구에 아주 요긴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검토한 필사본들은 『행계잡록』(5책), 『행계집』, 『잡록』(상)(하), 『열하일기』(원)(형)(리)(정), 『연행음청』(건), 『황도기략』(1)(2), 『열하피서록』, 『양매시화』, 『고정망양록』 등 모두 9종이다. 『행계잡록』 이하 『황도기략』까지는 아직 『열하일기』의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본들이다. 『열하피서록』은 연암이 『삼한총서』의 일부로서 편찬한 책이다. 『양매시화』는 현전하는 『열하일기』 이본들에는 그 제목만 전하는 「양매시화」의 초고이며, 『고정망양록』은 연암의 아들 박종채가 『열하일기』 중 「망양록」을 교정한 것이다.

이상의 필사본들을 검토한 결과, 『열하일기』의 최초의 서명이 『연행음청』이었다는 것과 『열하일기』가 점차 체제를 갖추면서 『연암집』의 외집으로 통합되어간 과정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덕무·유득공·박제가·이서구 등에 의해 『열하일기』에 평점이 가해지고 박종채에 의해 일부 개작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아울러 『열하일기』의 편명 및 작품명·소제목명 등이 일부 수정되었을 뿐 아니라, 서학과 관련된 내용이 대거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박지원, 열하일기, 이본 연구, 연민문고, 연행음청, 열하피서록, 양매시화

목 차

- | | |
|----------------------|----------------|
| I. 이본 연구 현황 | III. 새로 밝혀진 사실 |
| II. 단국대 연민문고 소장본의 검토 | IV. 남은 과제 |

*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 / yedong1807@snu.ac.kr

I. 이본 연구 현황

『열하일기』의 이본에 관한 연구는 연민(淵民) 이가원(李家源)선생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찍이 연민선생은 연암(燕巖)의 현손(玄孫)인 박영범(朴泳範)옹으로부터 기증받은 가장(家藏) 필사본들을 학계에 소개한 바 있는데, 그 중에는 『연행음청(燕行陰晴)] 등 『열하일기』의 초창기 이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¹⁾ 한편 연민선생은 『열하일기』를 국역하면서, 박영철(朴榮喆) 편 『연암집(燕巖集)] 중의 『열하일기』(이하 ‘박영철본’으로 약칭함)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장한 여러 이본들도 참조하여 일종의 교합본을 만들고, 이본 간의 차이를 주석으로 밝혀두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선구적인 시도는 본격적인 이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철저한 점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관련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은 탓으로 다른 연구자들에 의한 후속 연구가 나오기도 어려웠다.

그러던 중 1990년을 전후하여 『열하일기』가 ‘북학’을 집대성한 사상서로서만이 아니라 조선후기 한문학의 최고봉을 이루는 문예작품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그 이본에 관한 연구도 재개되었다. 강동엽은 연민선생의 국역본을 포함한 11종의 『열하일기』 이본들을 박영철본과 비교하는 시도를 했다.²⁾ 그의 연구에서 국회도서관 소장본 등 새로운 이본들을 추가하여 비교 대상을 확대한 것은 진일보한 점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이본들의 편차(編次)를 대조한 표를 제시하는 데 그친 것은 크게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필자는 『열하일기』의 주요 이본 7종을 선정하여, 편차뿐 아니라 본문의 세부적인 차이까지 철저히 검토하고자 했다. 그 결과 일부 이본들에서 중요한 개작이 이루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개작 여부에 따라 ‘초고본 계열’과 ‘개작본 계열’로 나누어 이본들의 특징을 고찰했다.³⁾ 하지만 당시 필자로서는 『열하일기』에 대한 종합적 연구의 일부로서 이본 비교를 시도한 것이라 비교 대상을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웠고, 충분히 논할 지면상의 여유도 갖지 못했다. 그러한 관계로 스스로 미흡함을 느끼던 차, 연민선생이 단국대에 기증한 『열하일기』 이본들 중 일부가 근년 들어 공개됨에 따라, 종전의 연구 결과를 수정·보완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이본 연구는 그 성과에 비해 시간과 품이 유달리 많이 드는 고단한 작업이다. 아마도 그런 탓인지 필자 이후 10여 년이 넘도록 『열하일기』 이본 연구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필자 역시 이본 7종을 검토하는 작업에만 꼬박 2년의 세월을 바쳤던 터라 다시 이본 연구에 착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서현경의 박사논문⁴⁾은 모처럼만에 본격적인 이본 연구를 시도한 역작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단국대 연민문고(淵民文庫) 소장본들과 일본 동양문고(東洋文庫) 소장본 등을 추가하여

1) 이가원, 「『연암집』 逸書·逸文 및 부록에 대한 소고」, 『국어국문학』 39·40 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68.

2) 강동엽, 『열하일기 연구』, 일지사, 1988, 23~29쪽.

3)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0, 27~47쪽.

4) 서현경, 「『열하일기』 정본의 탐색과 서술 분석」, 연세대 박사논문, 2008.

비교 대상을 대폭 확대했고, 자구(字句)의 수정까지 미세하게 비교했다. 그리고 ‘원(原)초고본 계열’ → ‘초고본 계열’ → ‘개작본 계열’과 ‘비(非)개작본 계열’ → ‘정본 계열’로 이본들의 계통을 추정하면서, ‘개작본 계열’ 중 전남대 소장본과 ‘정본 계열’ 중 동양문고 소장본을 중시하고, 동양문고 소장본은 전남대 소장본을 바탕으로 한 『열하일기』의 정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서현경의 연구에 의해, 『열하일기』의 이본들을 더욱 널리 조사·비교하고 이본들의 계통을 한층 더 정교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러나 그의 연구에서 편차와 자구 수정에 한정하여 이본들을 비교한 점과, 이른바 ‘비개작본 계열’에 속하는 이본들을 소홀하게 다룬 점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그리고 ‘정본 계열’에 속하는 이본들은 『연암집』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만큼, 『열하일기』뿐 아니라 『연암집』 전체로 확대해서 비교해야만 그 중의 어느 것이 과연 정본인지, 또는 정본에 가장 가까운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양승민은 경기도 안산시의 성호기념관(星湖記念館)에 소장된 『열하일기』 필사본을 학계에 소개함으로써,⁵⁾ 모처럼 되살아난 이본 연구의 불길을 이어갔다. 그는 성호기념관 소장본이야말로 ‘정본 계열’에 가장 근접한 ‘개수교정본(改修校訂本)’으로서 자료적 가치가 대단히 높으며, 이와 유사한 이본으로 전남대 소장본이 있으나 전남대 소장본은 성호기념관 소장본보다 뒤늦게 필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서현경의 주장과 정면 대립하는 것이어서, 학술발표회장에서 양자 사이에 논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필자는 이와 같은 신진 학자들의 의욕적인 연구에 자극받는 한편,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중본(東裝貴重本)> 해제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을 계기로, 『열하일기』 이본 연구에 다시 착수하게 되었다. 필자가 해제를 맡은 필사본 중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열하일기』 이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귀중본들과 아울러 해외에 있는 이본들까지 널리 수집·검토한다면, 종전의 수준을 넘어서는 연구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연민문고에 소장된 이본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는 대개 가장 초창기에 필사된 것들이어서 특히 흥미로운 자료라 할 수 있다.

II. 단국대 연민문고 소장본의 검토

단국대 연민문고에 소장된 고서는 이가원선생이 기증한 것으로, 그 중 연암과 관련된 필사본은 『연암집』과 『열하일기』 및 기타, 총 33종인 것으로 보고되었다.⁶⁾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중본> 해제사업’의 제1차년도는 이를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 필자는 그 중에서 12종에 대한 해제를 맡

5) 양승민, 「燕巖山房 校訂本 『열하일기』의 발견과 그 자료적 가치」, 한국고전문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2009. 6. 27.

6) 김문식,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필사본의 자료적 가치」, 『동양학』 43,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8 참조.

았다. 이는 거의 대부분 『열하일기』의 이본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자료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략적이거나 먼저 『열하일기』 이본들의 계통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필자는 국내외에 있는 이본 30여 종을 검토했다. 편차나 개작 여부, 자구 수정뿐 아니라 『연암집』의 체제와 『열하일기』 각 편의 소편차(小編次) 등을 포함하는 다각도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이본들을 일단 다음과 같은 네가지 계열로 나눌 수 있을 듯하다.

- (가) 초고본 계열 : 가장 초창기에 필사되었으며, 아직 『열하일기』의 독립적인 체제를 갖추지 못한 이본들.
- (나) 『열하일기』 계열 : 『열하일기』의 체제를 갖추었으나, 아직 『연암집』에는 통합되지 않은 이본들.⁷⁾
- (다) 『연암집』 외집(外集) 계열 : 『열하일기』를 『연암집』의 ‘외집’으로 통합하고자 한 이본들.⁸⁾
- (라) 『연암집』 별집(別集) 계열 : 『열하일기』가 『연암집』의 ‘별집’으로 통합되면서, 『연암집』의 권차가 부여된 이본들.⁹⁾

위의 구분에 따르면, 단국대 연민문고 소장 『열하일기』 필사본들은 대개 (가)의 ‘초고본 계열’에 속하는 이본들이다. 이러한 이본들은 연암의 친필로 짐작되는 독특한 해서체(楷書體)로 필사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열하일기』의 권차조차 아직 부여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아울러, 각 편의 순서 즉 소편차도 뒤죽박죽이라 할 수 있고, 같은 편이 한 책에 중복 수록된 경우도 종종 있다. 또 「상기(象記)」와 「희본명목(戲本名目)」이 「산장잡기(山莊雜記)」에 통합되지 않은 채 하나의 독립된 편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나머지 〈야출고북구기(夜出古北口記)〉 등 7편의 기(記) 역시 아직은 「산장잡기」라는 편명 아래 묶이지 않았다.

이제 시간적 순서상 먼저 필사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이본들부터 차례로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행계잡록』, 5책(缺帙)

『행계잡록』에 수록된 「도강록(渡江錄)」 등 제편(諸篇)은 『열하일기』의 최초의 원고에 가장 가까운 텍스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타 이본들에서는 삭제되거나 수정된 부분들을 보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 7) 연민문고 소장 一齋本, 충남대 소장본, 奎章閣 소장본 등.
 - 8) 朝鮮光文會 간행본, 전남대 소장본, 성호기념관 소장본 등. 그러나 실제로는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연암집』의 卷次가 부여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 9) 연민문고 소장 溪西本, 동양문고 소장본, 국회도서관 소장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勝溪文庫本, 박영철본 등. 서헌경의 분류에 따르면 ‘정본 계열’에 해당한다.
 - 10) 수록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책 : 「도강록」[㉠], 「盛京雜識」. 제2책 : 「駙汎隨筆」, 「關內程史」. 제3책 : 「도강록」[㉡], 「漠北行程錄」, 「太學留館錄」. 제5책 : 「銅蘭涉筆」[㉢], 「幻戲記」[㉣], 「상기」[㉤], 「避暑錄」[㉥]. 제6책 : 「傾蓋錄」, 「黃教問答」, 「行在雜錄」, 「班禪始末」, 「희본명목」, 「환희기」[㉦], 「상기」[㉧], 「피서록」[㉨], 「동란섭필」[㉩].

『행계잡록』 제1책의 「도강록」^㉑는 책의 편성 순서와는 무관하게, 제3책의 「도강록」^㉒보다 나중에 필사된 그 수정본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제3책은 7월 1일자 기사의 전문을 보존하고 있으나, 제1책은 그 기사의 말미 부분에서 모두 58자나 지우고 그 부분을 간략하게 고쳤다. 그리고 「성경잡지」의 목록도 “○○○○目錄”이라 하여 4자가 지워져 있고, 난외에 “열하일기” 4자가 추기(追記)되어 있다. 「성경잡지」 본문의 권수제(卷首題) 역시 “연행음청(燕行陰晴)”을 지우고 “열하일기”로 고쳐져 있다. 이로 미루어, 『열하일기』가 애초에는 『연행음청』으로도 일컬어졌음을 알 수 있다.

『행계잡록』 제2책의 「관내정사」 중 〈호질(虎叱)〉을 보면 두 군데에 도합 50자가 지워져 있다. 이처럼 지워진 부분의 원문은 현전하는 어떤 이본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로 미루어, 제2책 중의 〈호질〉은 〈호질〉의 최초의 원고에 가까운 것임을 알 수 있다.

『행계잡록』 제3책의 「도강록」^㉒를 보면 그 목록 및 권수(卷首)에 『열하일기』의 서명이 ‘연행음청기(燕行陰晴記)’로 적혀 있다. 『열하일기』가 애초에는 『연행음청기』로도 일컬어졌음을 알 수 있다.

『행계잡록』 제5책 및 제6책의 「상기」에 대해 각각 20개 낱짓의 평어가 두주(頭註)로 첨부되어 있다. 누가 두주를 가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이는 「상기」의 예술성을 정밀하게 분석한 평어로서 간주되어 여러 필사본들에 수록되었다.¹¹⁾ 말미에 유득공(柳得恭)의 평어¹²⁾가 있는 점으로 미루어, 유득공이 두주를 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행계잡록』 제5책 및 제6책의 「피서록」은 서문과 총 53개 또는 52개 단락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타 이본들에 비해 본문이 3~4개 단락 적다. 『행계잡록』 이후에 「피서록」에 약간의 내용이 보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행계잡록』 제6책의 「경개록」은 연암이 열하 체류 중에 사귀 윤가진(尹嘉鎔) 등 중국인 11인을 소개한 글인데, 마지막의 왕삼빈(王三賓)은 성명만 기재되어 있다. 「경개록」 역시 나중에 내용이 보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행계잡록』 제6책의 「황교문답」, 「행계잡록」, 「반선시말」도 초고본의 모습을 다분히 간직하여, 현전하는 여타 이본들과 비교하면 지구상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이 세 편에 대해서도 나중에 세심한 수정이 가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행계집(杏溪集)』, 1책¹³⁾

「혹정필담(鵠汀筆談)」은 원래 서문과 총 29개 단락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계집』의 「혹정필담」에는 본문 단락(2)부터 단락(11)의 일부까지가 누락되어 있다.

『행계집』의 「옥감야화」는 〈허생전〉 부분의 본문 옆에 검붉은 글씨로 11개의 평어[旁批]가 씌어 있는 점이 특색이다. 평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작품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

『열하일기』 중 「망양록」은 이본 간의 차이가 심한 편(篇)이다. 『행계집』의 「망양록」은 원래 충남

11) 이와 대동소이한 두주가 『연암집』 選本인 『百尺梧桐閣集』, 『烟湘閣集』과 서울대 고도서본 『열하일기』 등에도 있다.

12) “冷齋曰：‘天下至奇之文!’”

13) 「鵠汀筆談」, 「玉匣夜話」, 「忘羊錄」, 「筆談義例」(즉 「審勢篇」), 「札什倫布」를 수록했다.

대 소장본과 마찬가지로 서문과 총 35개 단락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서문과 본문 단락(1)(2)에 해당하는 총 359자가 누락되었으며, 단락(8)도 초반 110자가 삭제되었다.

후술할 『잡록(雜錄)』(상)의 「망양록」과 마찬가지로 『행계집』의 「망양록」은 단락(19)의 말미에 이서구(李書九)의 세주(細註)¹⁴⁾가 있지만, 그의 친필이 아니라 본문과 동일한 필체를 취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행계집』의 「망양록」은 『잡록』(상)의 「망양록」을 정서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부 단락들을 보면 『잡록』(상)과 달리 자구를 수정한 흔적이 있어, 두 필사본의 선후 관계는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행계집』의 「심세편」은 「망양록」의 부록인 양, 편명을 “필담의례(筆談義例) 부(附)”라고 했다. 표지에서 “필담의례 즉(卽) 심세편”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필담의례’는 ‘심세편’의 원래 편명이다. 이는 중국의 실정을 관찰하는 법과 청조의 통치술에 관해 논한 글인데, 원래는 「망양록」과 같은 필담의 범례로서 집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잡록』(상)과 달리 ‘필담의례’라는 편명을 아직 ‘심세편’으로 고치지 않은 점을 보면, 『잡록』(상)보다 먼저 필사된 이본으로 보이지만, 『잡록』(상)에서 수정·가필한 부분들이 본문에 반영된 점으로 보면 그보다 나중에 필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행계집』의 「반선시말」은 현전하는 「반선시말」의 이본들 중 가장 초기의 텍스트에 해당한다. 여타 이본들과 비교하면 자구상의 차이가 약간 있다.

『행계집』은 삭제되거나 누락된 부분들이 많은 점이 큰 특색이다. 「혹정필담」에서 단락 일부가 누락된 것은 서학(西學)과 관련된 내용 때문인 듯하다. 즉 연암이 중국인 왕민호(王民皐) 등을 상대로 지구자전설을 역설하면서 김석문(金錫文)과 홍대용(洪大容)의 천문학설을 소개하고, 천주교의 교리와 중국에 전래된 경위에 관해 토론한 내용이 모두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망양록」에서 두 군데에 걸쳐 모두 400여 자가 누락된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에서인 듯하다. 마테오 리치(利瑪竇)가 중국에 전래한 양금(洋琴)과 관련하여 서양의 역법·기하학·알파벳·음악 등의 우수성을 소개한 내용과, 조선에 양금이 전래된 경위 및 홍대용이 조선 최초로 양금 연주법에 통달한 사실, 연암이 윤가전과 왕민호의 부탁으로 양금의 음률을 직접 구송해 보이는 장면 등이 누락되어 있다.

3. 『잡록』(상)(하)¹⁵⁾

『잡록』(상)의 「망양록」은 원래 충남대 소장본과 마찬가지로 서문과 총 35개 단락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문 단락(1)·(2) 및 단락(3)의 대부분이 없는데, 이는 필사 누락이나 낙장(落張)으로 인한 것으로 짐작된다. 마찬가지로 단락(7)의 후반과 단락(8)도 낙장으로 인해 없어졌다. 이는 『행계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학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한 조치였던

14) “薑山曰：‘房兼二義。藝祖受禪，遷周恭帝于房州。鶴汀之言，正指此也。尤詩右招我由房，注房東房也。’”

15) (상)은 「망양록」과 「심세편」, (하)는 「口外異聞」, 〈야출고북구기〉 등 7편의 記, 「還燕道中錄」, 「金蓼小抄」, 「옥갑야화」, 「혹정필담」을 수록했다.

것으로 추측된다.

「망양록」의 본문 단락(19) 말미의 세주(16)는 『행계집』과 『잡록』(상)에만 있다. 『잡록』(상)의 세주는 이서구가 가한 것으로, 그의 친필로 판단된다. 「망양록」의 도처에 주묵(朱墨) 비점이 있는데, 본문에 세주를 가한 점으로 미루어 이 비점 역시 이서구가 가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잡록』(상)의 「심세편」은 『행계집』과 마찬가지로 편명을 ‘필담의례 부’라고 썼다가, 삭제 표시를 하고 ‘심세편’으로 고쳤다.

박영철본의 「구외이문」은 〈반양(盤羊)〉 이하 모두 60개 단락의 기이한 이야기를 소재목과 함께 수록하고 있는데, 『잡록』(하)의 「구외이문」은 각 단락에 소재목이 없으며, 10번째 단락인 〈초사(樵史)〉까지만 수록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구외이문」의 가장 초기 원고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잡록』(하)에 수록된 〈야출고북구기〉 등 7편의 기는 퇴고한 흔적이 심하다. 이와 같은 퇴고의 흔적을 통해 7편의 기를 각기 한 편의 작품으로 완성하기까지 연암의 고심을 엿볼 수 있으므로, 작품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 〈야출고북구기〉의 후지(後識)도 현전하는 필사본들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퇴고의 흔적이 역력하다.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 역시 작품 이해에 긴요한 몇 군데에 퇴고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잡록』(하)의 「환연도중록」 8월 17일자, 19일자, 20일자 기사는 여타 이본들에서 개작된 부분들을 보존하고 있어, 가장 초기의 원고 상태를 보여준다. 특히 8월 20일자 기사는 여타 이본들과 크게 다르다. 예컨대 연암이 자신의 술 친구인 ‘이주민(李朱民)’을 소개한 대목을 보면, 그를 ‘이성흠(李聖欽)’으로 부르고 있으며, 여타 이본들과 달리 훨씬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성흠’은 곧 이희명(李喜明: 李喜經의 동생)의 자(字)이다. 그러므로 ‘주민(朱民)’은 이희명의 또 다른 자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로 미루어, 『잡록』(하)를 필사한 이후의 어느 시기에 연암이 「환연도중록」 8월 20일자 기사에서 ‘이성흠’을 ‘이주민’으로 고치고 내용도 크게 보완했음을 알 수 있다.

『잡록』(하)의 「금료소초」 서문은 “서양(西洋)이란 글자가 들어간 두 구절을 삭제하고 있다. 이 역시 서학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한 조치라 하겠다.

『잡록』(하)의 「옥갑야화」 중 〈허생전〉 부분에는 박제가의 두주(17)와 본문 말미의 평어(18)가 있다. 이처럼 『행계집』에는 없던 박제가의 두주와 평어가 『잡록』(하)에 있는 사실은 『잡록』(하)가 『행계집』 이후에 필사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박제가의 이름이 지워져 버려 누구의 평어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혹정필담」은 서문과 총 29개 단락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잡록』(하)의 「혹정필담」은 서문부터 단락(12)의 일부까지가 없다. 『행계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학과 관련된 내용 때문에 대거

16) 주14와 같음.

17) “一斤爲一金。此所云金，指一百錢耳。古今輕重忒甚，次修。”

18) “大略以叫驛客配貨殖，而中有重峰封事·柳氏隨錄·○○○○(李氏僂說)所不能道者。行文尤踈宕悲憤，鴨水東有數文字。○○(齊家).”(괄호 안은 삭제된 글자를 복원한 것임)

누락된 듯하다. 한편 『잡록』(하)의 「혹정필담」은 내용과 관련된 두주가 35개나 있는 점이 특색이다. 이와 같은 두주들은 「혹정필담」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옥감야화」 중의 박제가의 두주 및 평어와 필체가 동일한 점으로 보아, 이 역시 박제가가 가한 것이 아닐까 한다.

4. 『열하일기』(元)(亨)(利)(貞)¹⁹⁾

『행계집』이나 『잡록』(상)의 「망양록」과 달리, 『열하일기』(원)의 「망양록」은 서문과 총 35개 단락의 본문을 완비하고 있는 초고본이다. 자구상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행계집』이나 『잡록』(상)과 같은 선행본을 일부 수정했으며, 그 결과 충남대 소장본과 유사한 점이 많다.

『열하일기』(형)은 『행계집』 제5책과 제6책의 「동란섭필」 및 『열하일기』(리)와 가까운 필사본이다. 자구상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열하일기』(형)은 실은 『열하일기』(리)를 수정한 필사본으로 추정된다. 『열하일기』(리)에는 이덕무(李德懋)가 「동란섭필」에 가한 45개의 두주가 있는 데 비해, 『열하일기』(형)에는 모두 5개의 두주가 있다. 이 두주들은 전자와 유사한 것도 있고 상이한 것도 있다. 누군가가 『열하일기』(리)의 두주를 선별하여 필사하면서, 일부 수정·보완하기도 했던 듯하다. 이 두주들은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전남대 소장본 등 후대의 일부 필사본들에도 계승되고 있어 이본들의 계통과 선후 관계를 짐작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열하일기』(리)는 자구상의 차이로 미루어 볼 때, 가장 이른 시기에 「동란섭필」을 필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란섭필」은 서문과 총 85개 단락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열하일기』(리)는 서문부터 본문 단락(40)까지에 걸쳐 모두 45개의 두주가 있는 점이 특색이다. 누가 이 두주들을 가했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덕무가 가한 것임에 틀림없다. 예컨대 두주(1)에서 “余於徐紹芬家，見烏木·降眞香等.”이라 했는데, 서소분(徐紹芬)은 이덕무가 1778년 연행 도중 영평부(永平府) 무녕현(撫寧縣)에서 만난 중국인이다.²⁰⁾ 또 두주(27)에서는 “余於今夏，校閱內閣詩講義.”라고 했는데, 이는 1783년 음력 5월 이덕무가 『내각모시강의(內閣毛詩講義)』를 교열한 사실과 부합한다.²¹⁾ 이로 미루어, 이덕무는 1783년에 『열하일기』(리)에 두주를 가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문에 가해져 있는 수많은 비점들도 이덕무가 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영철본의 「구외이문」은 〈반양〉 이하 모두 60개 단락의 기이한 이야기를 소재목과 함께 수록하고 있는데, 『열하일기』(정)의 「구외이문」은 각 단락에 소재목이 없으며 22번째 단락인 〈육청(六廳)〉까지만 수록하고 있다. 소재목이 없는 점은 『잡록』(하)와 같으나, 후자보다 단락이 12개 더 많다.

19) 수록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元) : 「망양록」, 「심세편」. (亨) : 동란섭필①. (利) : 동란섭필②. (貞) : 「구외이문」, 〈야출고북구기〉 등 7편의 記, 「환연도중록」, 「금묘소초」, 「옥감야화」.

20) 이덕무, 『靑莊館全書』 권11, 「雅亭遺稿」 3, 詩 3, 「題撫寧縣徐紹芬家」; 『청장관전서』 권66, 「入燕記」 上, 正祖 2년 5월 8일.

21)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12, 『아정유고』 4, 詩 4, 「校內閣毛詩講義」; 『청장관전서』 권69, 『寒竹堂涉筆』 下, 「毛詩講義」; 『청장관전서』 권70, 「年譜」 上, 癸卯, 5월 5일.

『잡록』(하) 이후 연암이 내용을 추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열하일기』(정)에 <야출고북구기> 등 7편의 기가 「산장잡기」라는 편명이 없이 수록되어 있는 점은 『잡록』(하)와 같다. 그러나 곳곳에 퇴고의 흔적이 역력한 후자와 달리, 『열하일기』(정)의 경우는 이러한 7편의 기가 연암의 친필로 짐작되는 독특한 해서체로 정서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열하일기』(정)이 『잡록』(하)의 수정본임을 알 수 있다.

『열하일기』(정)의 「환연도중록」 역시 『잡록』(하)를 일부 수정·보완한 필사본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8월 19일자와 8월 20일자 기사를 보면, 『잡록』(하)의 일부 대목을 크게 수정·보완했으며, 그 결과 충남대 소장본 등과 같아졌음을 알 수 있다. 『열하일기』(정)의 「금료소초」도 『잡록』(하)의 수정 사항을 반영한 필사본이라 판단된다. 『잡록』(하)와 마찬가지로, 그 서문에서 “서양”이란 글자가 들어간 두 구절을 삭제하고 있다.

『열하일기』(정)의 「옥갑야화」 중 <허생전> 부분을 보면 본문에 성대중(成大中)의 두주²²⁾와 후지 말미에 박제가의 평어²³⁾가 있으며, 본문에 적색과 흑색 두 종류의 비점이 다수 가해져 있다. 그러므로 이는 성대중과 박제가가 열람하고 평점을 가한 필사본으로 짐작된다. 다만 『잡록』(하)와 유사하게, 박제가의 평어에서 그의 자와 이름이 지워져 버려 누구의 평어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5. 『연행음청』(乾)²⁴⁾

일찍이 연민선생은 『연행음청』에 대해 “경자(庚子) 5월 초10일부터 9월 30일에 이르는 일기”라고 하고, 「수사소인(廋詞小引)」이 “『연행음청』 제4책 끝에 실려 있었다.”고 소개했다.²⁵⁾ 그러나 연민문고 소장 『연행음청』은 건·곤 2책의 체제로 되어 있으며, 그 중의 첫째 책인 이 필사본에는 3종의 「황도기략」이 필사되어 있다. 이는 비록 난고(亂稿)이기는 하지만, 연암의 친필본이자 가장 이른 시기의 초고에 해당하는 필사본으로서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연행음청』(건)의 「황도기략」^㉔은 총 39개 항목 중 11개 항목이 없을뿐더러 제대로 편철되지 않아 항목들의 순서가 매우 어지럽다. 항목의 소제목 및 순서뿐 아니라 본문의 자구상에서도 여타 이본들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준다. 특히 <풍금(風琴)>과 <양화(洋畫)>는 소제목이 각각 ‘천주당’과 ‘천주당화(天主堂畫)’로 되어 있으며, 후술할 『황도기략』(1)(2)와 달리 그 전문이 보존되어 있다. 단 박영철본과 비교할 때 <양화>의 전반에 해당하는 109자가 없으며, 자구상의 차이가 적지 않다. <황금대(黃金臺)>(박영철본에는 <황금대기>로 제목이 고쳐져 있음)도 말미 부분이 박영철본과 크게 다르다.

이어서 「황도기략」^㉕의 첫 부분이 1장(張)에 필사되어 있다. 첫 항목이 <금오교(金鰲橋)>부터 시작

22) “知我東前有如此人物，後有如此文字。大中。”

23) 주18과 같음.

24) 「황도기략」^㉔, 「황도기략」^㉕, 「學生崔公墓表陰記」(崔鎮寬), 「玉鯨遊錄」(=「황도기략」^㉔), <虎叱>을 수록했다.

25) 이가원, 앞의 논문, 166쪽, 168쪽.

하여, <황성(皇城)>(박영철본의 <황성구문(皇城九門)>에 해당함)부터 시작하는 「황도기략」^㉔와는 다른 이본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의 2장에는 제목과 찬자를 알 수 없는 누군가의 묘도문자(墓道文字)가 수록되어 있다. 이는 1789년에 최진관(崔鎭寬)이 짓고 한경기(韓敬琦)가 글씨를 쓴 「조선국 학생최공휘성 묘표음기(朝鮮國學生崔公輝星墓表陰記)」의 초고로 판단된다.²⁶⁾ 연암은 1789년 최진관의 청탁으로 그의 생부 최순성(崔舜星)의 묘갈명인 「치암최옹 묘갈명(癡庵崔翁墓碣銘)」을 지어주었다. 최진관이 지은 그의 계부 최휘성의 묘표음기는 아마도 이 글을 짓기 위한 자료로서 제공된 것을 연암이 필사해 두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마지막 2장에는 각각 「황도기략」^㉕와 <호질>의 일부가 씌어 있다. 「황도기략」^㉕는 편명이 ‘옥동유록(玉竦遊錄)’으로 되어 있고, 첫 항목으로 <대광명전(大光明殿)>이 필사되어 있다. <대광명전>은 박영철본으로는 「황도기략」의 총 40개 항목 중 26번째에 해당한다. 아마도 가장 초기의 「황도기략」은 편명을 ‘옥동유록’이라고 했으며, <황성구문>이나 <금오교>가 아니라 <대광명전>부터 시작되었던 듯하다. 「황도기략」^㉕ 다음에 있는 <호질>은 제목이 없지만, 「관내정사」 중 <호질>의 일부인 140여 자를 필사하다가 중단한 것이다.

6. 『황도기략(黃圖紀略)』(1)(2)²⁷⁾

판심(版心)에 “연암산방(燕岩山房)”이라 씌어 있다. 『황도기략』(1)에 수록된 「황도기략」^㉖의 목록을 보면, <호권(虎圈)> 다음의 두 항목이 각각 “○○○(천주당)” “○○○(천주당)畫”로 지워져 있다.²⁸⁾ 그 중 전자는 본문에 그 제목이 <풍금>으로 고쳐져 있고, “余友洪德保嘗論○○(西洋)人之巧”, “然其記○○(天主堂), 則猶有憾焉.” 등과 같이 여러 군데 글자가 삭제되어 있다. 그리고 말미에는 본문과 무관하게, “觀者, 莫不驚號錯愕, 仰首張手, 以承其墮落也.”라는 엉뚱한 구절이 덧붙여져 있다. 또 「황도기략」^㉖의 목록에 ‘○○○(천주당)畫’로 되어 있는 항목은 그에 해당하는 본문이 아예 없다. 이는 <풍금>에서 ‘천주’와 ‘서양’이라는 글자를 삭제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천주당화>(즉 <양화>) 전체를 삭제하고자 한 결과, <천주당화>의 마지막 구절만 남아서 <풍금>의 말미에 덧붙여진 꼴이 된 것이다.

『황도기략』(2)는 『황도기략』(1)과 동일한 내용을 필사한 것이다. 후자가 대체로 단정한 해서체로 필사되어 있는 데 비해, 『황도기략』(2)는 연암의 친필로 추정되는 독특한 해서체로 필사되어 있다. 그리고 「황도기략」^㉖의 목록 및 <풍금>에서 ‘천주’와 ‘서양’이라는 글자를 말살하고자 일부 구절들을 지우고 <천주당화> 전문을 삭제한 점은 『황도기략』(1)과 똑같지만, 삭제 정도가 더욱 심하다.

26) 박철상, 「開城의 진사 崔鎭寬과 연암」, 『문헌과 해석』 32, 2005 참조.

27) 제1권에 「황도기략」^㉔, 「알성퇴술」^㉕, 「양엽기」^㉖, 제2권에 「황도기략」^㉕, 「알성퇴술」^㉕, 「양엽기」^㉖를 수록했다.

28) 이하 괄호 안은 삭제된 글자를 복원한 것임.

7. 『열하피서록(熱河避暑錄)』, 1책

『황도기략』과 마찬가지로, 판심에 “연암산방”이라 써어 있다. 권수에 “삼한총서(三韓叢書) 권○/ 반남 박지원 미재(美齋) 집(輯)/ 열하피서록/ 반남 박지원 미재 저(著)”라고 써어 있듯이, 『열하피서록』은 『삼한총서』의 일부로서 편성된 것이다. 박종채의 『과정록(過庭錄)』에 의하면, 『삼한총서』는 연암이 중국에 다녀온 직후인 1780년대 전반에 주로 한중 관계와 관련된 양국의 문헌 자료를 뽑아 편찬한 것이었다. 책으로 완성한 것이 20~30권에 달했으나 흩어져 거의 없어지고, 목록의 초고 일부만 남았다고 했다. 현재 『삼한총서』의 일부로서 겨우 7종의 책이 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²⁹⁾ 그 희귀한 책 중의 하나가 바로 『열하피서록』이다. 표지에 써어진 연암 손자 박규수(朴珪壽)의 글³⁰⁾에 의하면, 이는 연암의 친필본이자 박규수의 교열을 거친 필사본임을 알 수 있다.

박영철본의 「피서록」은 서문과 총 56개 단락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와 달리, 박규수의 글에 의하면 『열하피서록』의 ‘반권(半卷)’ 즉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 필사본은 서문이 없으며, 모두 22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각 단락마다 소제목이 부여되어 있는 점이 특색이다. 각 단락의 내용과 순서가 박영철본과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중 10개 단락은 박영철본에는 전혀 없는 내용이다.³¹⁾

박영철본의 「피서록」에는 없는 내용 중에서 단락(20) 〈항사정교(杭士訂交)〉는 특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는 1766년 홍대용이 북경에서 항주(杭州) 출신 선비 엄성(嚴誠) 등과 결교한 사실과, 엄성의 사후에도 양국 문사들의 우정이 이어지고 확대되던 간 미담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다. 물론 이에 관해서는 홍대용의 『간정동필담(乾淨洞筆談)』과 이덕무의 『청비록(淸脾錄)』 등에도 자세히 전하고 있지만, 『열하피서록』의 〈항사정교〉에는 그와 같은 문헌들에는 없는 내용이 적지 않다. 예컨대 1778년 이덕무·박제가가 중국에 갈 때 연암이 지은 송별시 2수가 소개되어 있는데,³²⁾ 이 오언절구 2수는 연암의 일시(逸詩)에 속한다. 이는 영남대 소장본 『연암집』과 국립중앙도서관 승계문고본 『연암집』에만 「송이무관·박차수 입연 2수(送李懋官朴次修入燕二首)」라는 제목으로 추록(追錄)되어 있으나, 그 출처는 아마도 이 『열하피서록』이었을 것이다.

원래 『열하일기』 「피서록」은 이덕무의 『청비록』과 유사한 내용이 많지만, 『열하일기』 「피서록」에는 없고 『열하피서록』에만 있는 내용들 역시 『청비록』과 유사한 경우가 많다.³³⁾ 이러한 사실은 연암

29) 김영진, 「조선 후기 실학파의 총서 편찬과 그 의미」, 이해순 외 공편, 『한국한문학 연구의 새 지평』, 소명출판, 2005 참조. 단 『과정록』에 전하는 『삼한총서』의 목록 초고에 『열하피서록』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30) “避暑錄手稿半卷. 此是先王考手藁也. 與今本小異而加詳, 未知元本出後更起此艸者歟. 當與今本參互, 更爲考定者. 庚子(1840)暮春, 孫珪壽識.”

31) 연민선생의 국역본에 그 중 일부가 “避暑錄補”라는 제하에 번역·소개된 바 있다.

32) “…… 其明年李懋官·朴次修入燕, 余贈別曰, ‘艸色連去馬, 亭柳暗征袍. 昨夜山窓夢, 先君已渡遼.’ 又‘馬尾昇紅旭, 旋看馬首沈. 遼陽一千里, 去去將誰尋.’ 盖囑其逢陸潘諸人, 以續湛軒舊遊也.”

33) 예컨대 단락(4) 〈三韓婦人盤髮〉은 『청비록』 3 〈朝鮮詩選〉과, 단락(7) 〈春帖喧藉〉는 『청비록』 2 〈中朝人歎賞〉과, 단락(8) 〈輒思東來〉는 『청비록』 1 〈宇文虛中〉과 유사하다.

과 이덕무의 밀접한 학문적 영향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열하피서록』 중의 일부 내용이 『열하일기』 「피서록」에 실리지 않은 이유도 이처럼 『청비록』과 중복되는 점이 많았던 때문이 아닐까 한다.

8. 『공작관집(孔雀館集): 양매시화(楊梅詩話)』, 1책

표지에 “공작관집”이라는 표제가 씌어 있고, 그 우측에 “열하일기/ 양매시화”라 씌어 있다. 그리고 공백인 첫 장에 “元本中落漏, 騰入次.”라 쓴 쪽지가 붙어 있다. 『열하일기』의 원본에 빠져 있으므로 등서하여 편차에 넣으라는 지시인 듯하다.

「양매시화」는 현전하는 『열하일기』 이본들에는 없는 일편(逸篇)이다. 그 서문에 의하면, 연암이 북경의 양매서가(楊梅書街)에서 중국 문사 유세기(俞世琦) 등과 만나 나눈 필담의 초고를 정리한 것이다. 서문과 총 31개 단락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매시화』는 연민선생에 의해 처음으로 학계에 그 존재가 알려졌으며,³⁴⁾ 연민선생의 국역본에 일부 내용 즉, 서문과 단락(1) 및 단락(3)의 전반이 소개되기도 했다. 따라서 『양매시화』는 여태까지 전모가 알려지지 않은 매우 희귀한 자료라고 하겠다.

다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고염무(顧炎武)의 『일지록(日知錄)』에서 전제한 글이 많다. 예컨대 위구르족에 관한 내용인 단락(8)~(12)는 『일지록』 권29, 「토번회홀(吐蕃回紇)」에서 전제한 글이다. 뿐만 아니라 『열하일기』의 다른 편과 중복되는 내용도 적지 않다. 예컨대 단락(23)~(25)는 「구외이문(口外異聞)」의 〈명련자봉왕(明璉子封王)〉, 〈삼학사성인지일(三學士成仁之日)〉, 〈당금명사(當今名士)〉와 중복되는 내용이다.

단락(26)은 명나라가 망할 때 조선으로 망명한 중국인 강세작(康世爵)의 「자술(自述)」을 전제한 것이고, 단락(27)은 남구만(南九萬)과 박세당(朴世堂)이 지은 전(傳) 등에 의거하여 강세작에 관해 기술한 것인데, 이 역시 새로운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단락(5)와 (6) 역시 연암이 중국 문사들과 나눈 필담 초고에 속하지 않는데도 『양매시화』에 포함되어 있다. 단락(5)는 배시황(裴是幌)의 『북정록(北征錄)』을 간추려 소개한 것이다. 1658년 제2차 나선(羅禪: 러시아) 정벌에 참여하여 전공을 세운 배시황이 남긴 기록을 신돈복(辛敦復)에게서 얻어 그 줄거리를 소개한다고 하였다. 단락(6)은 〈제배시황북정록후(題裴是幌北征錄後)〉이다. 진사 민유(閔瑜)에게서 얻은 배시황의 기록을 축약하고 윤색했노라고 밝혔다.³⁵⁾

이상과 같이 『양매시화』는 『일지록』에서 전제한 글이나 『열하일기』의 다른 편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강세작의 「자술」이나 배시황의 『북정록』과 같은 이질적인 자료를 대폭 수록하고 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열하일기』의 한 편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34) 이가원, 앞의 논문, 165쪽.

35) 단락(5)는 연암 아니면 이덕무의 글이고, 단락(6)은 신돈복의 글인 듯하나, 작자 문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9. 『정묘중정연암집(丁卯重訂燕岩集) : 고정망양록(考定忘羊錄)』, 1책

『황도기략』이나 『열하피서록』과 마찬가지로, 판심에 “연암산방”이라 써어 있다. 별도의 표지 없이 오사란(烏絲欄)의 첫 장 중앙에 “정묘중정연암집”이라고 표제가 써어 있고 그 우측에 다시 “고정망양록”이라 써어 있다. 표제 좌측에 “탁연재(濯研齋)”라고 써어 있는데, ‘탁연재’는 박종채의 당호이다. 표제 중 ‘정묘중정’은 박종채가 부친의 3년상이 끝난 직후인 정묘(1807)년에 『연암집』 편찬의 일환으로 『열하일기』 중의 「망양록」을 거듭 수정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고정망양록”라고 명명했을 것이다.

박영철본의 「망양록」은 서문과 총 40개 단락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정망양록』은 단락(29)의 초두까지만 필사되어 있다. 곳곳에 두주가 가해져 있는 점이 한 특색이다. 자구 수정을 지시한 것인데,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考)자’를 붙였다. 이와 같은 본문 중의 두주나 오자 수정은 박종채가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열하일기』 중 「망양록」은 이본 간의 차이가 심한 편(篇)이다. 박영철본과 달리, 『행계집』과 『잡록』(상), 『열하일기』(元) 등 ‘초고본 계열’ 이본들과 충남대 소장본 등은 「망양록」이 서문과 총 35개 단락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고정망양록』은 「망양록」의 본문을 총 40개의 단락으로 재편집을 뿐만 아니라, 글자를 추가하거나 수정·삭제하기도 했다. 예컨대 ‘초고본 계열’ 「망양록」의 단락(18)을 보면, 4개의 단락으로 분화되었을 뿐더러 도합 109자가 추가되어 내용이 크게 보완되었다. 이처럼 『고정망양록』은 최초의 「망양록」을 대폭 개작·수정한 것이다. 현전하는 대부분의 이본들은 이러한 『고정망양록』의 조치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Ⅲ. 새로 밝혀진 사실

이상에서 단국대 연민문고에 소장된 『열하일기』 이본들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대개 ‘초고본 계열’에 속하는 필사본으로, 『열하일기』의 초창기 모습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들을 검토한 결과 새로 밝혀진 사실들을 종합·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열하일기』의 최초의 서명과 체제 정비 과정을 알 수 있다. 『행계잡록』과 『연행음청』(진)을 보면, 『열하일기』의 최초의 서명이 ‘연행음청’ 또는 ‘연행음청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만주(兪晩柱)의 기록과도 합치한다. 그의 일기인 『흙영(欽英)』에도 『열하일기』가 때로는 『연행음청기』나 『음청』(『연행음청』의 약칭)으로 기록되어 있다.³⁶⁾

『행계잡록』은 최초의 서명을 ‘열하일기’로 고치면서, 이와 아울러 『열하일기』의 체제를 정비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제3책의 「도강록」 즉 『연행음청기』의 「도강록」에는 권차가 부여되지 않았지만,

36) 유만주, 『欽英』, 제22책, 丙午(1786) 10월 26일, “○ 閱燕行陰晴記第二(云云別部) ○ 夜閱燕行陰晴記第一”; 11월 26일, “…… 仍示其小序陰晴卷首效公穀者曰: ‘是古文也.’”(『흙영』 6, 서울대 규장각 영인, 404쪽, 424쪽).

제1책의 「도강록」 즉 『열하일기』로 서명을 고친 「도강록」에는 ‘권1’이라는 권차가 부여되어 있음을 보면, 연암은 『연행음청』 또는 『연행음청기』였던 최초의 서명을 『열하일기』로 고치면서, 비로소 각 편들에 권차를 부여하기 시작했던 듯하다.

하지만 이때에도 권차는 일부 편들에만 부여되었으며, 필사본에 따라 각기 독자적으로 부여되었던 듯하다. 제3책의 「막북행정록」과 「태학유관록」에 각각 ‘권1’, ‘권2’라는 『열하일기』의 권차가 부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행계잡록』 제3책은 「막북행정록」과 「태학유관록」으로만 편성된 『열하일기』 필사본에다가 『연행음청기』의 「도강록」을 합철한 것이 아닌가 한다. 유만주의 『흙영』에 “閔熱河日記卷之一曰漠北行程錄.”라는 기록이 있음을 보면,³⁷⁾ 「막북행정록」이 『열하일기』의 제1권으로 편성된 필사본도 존재했던 것 같다.

그런데 아마도 연암의 사후에 박종채가 『연암집』을 편찬하면서 『열하일기』를 『연암집』의 ‘외집’으로 통합하고자 했던 듯하다. 『행계잡록』 제1책 「도강록」과 「성경잡지」 권수의 난외에 “연암외집”이라 추기되어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이처럼 『연암집』에 『열하일기』를 통합하고자 하면서, 각 책의 표지에서 보듯이 『행계잡록』 제1책 「도강록」과 「성경잡지」, 제2책 「일신수필」과 「관내정사」, 제3책 「막북행정록」과 「태학유관록」에 차례로 1~6의 편차를 부여했던 듯하다. 이 6편의 편차는 박영철본과 일치한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 작업은 『행계잡록』 제3책까지만 이루어졌으며, 이 경우에도 『연암집』의 권차는 아직 부여되지 못했다. 즉 『연암집』의 ‘외집’으로 진정한 통합을 이루지는 못했던 것이다. 요컨대 『행계잡록』은 『열하일기』의 체제가 ‘초고본 계열’ → ‘『열하일기』 계열’ → ‘『연암집』 외집 계열’로 진화하면서 점차 정비되어 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둘째, 연암의 동인(同人)과 후손에 의해 『열하일기』에 평점이 가해지고 개작·수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행계잡록』 제5책과 제6책의 「상기」에는 유득공의 평어가 있고, 『행계집』과 『잡록』(상)의 「망양록」에는 이서구의 세주가 있다. 『잡록』(하)의 「옥갑야화」 〈허생전〉에는 박제가의 두주와 말미 평어가 있으며, 『열하일기』(정)의 「옥갑야화」 〈허생전〉에는 성대중의 두주와 박제가의 말미 평어가 있다. 그리고 『열하일기』(리)에는 무려 45개나 되는 이덕무의 두주가 있다. 이는 이덕무·성대중·유득공·박제가·이서구 등 연암의 동인들이 ‘초고본 계열’의 『열하일기』 필사본을 열람하고 각자의 소견을 평점을 통해 피력한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 『고정망양록』과 『열하피서록』을 보면, 연암의 사후 아들 박종채와 손자 박규수가 『열하일기』의 개작·수정 작업을 맡아 추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박종채는 『열하일기』 「망양록」의 본문을 종전의 35개 단락에서 40개 단락으로 크게 재편했을 뿐 아니라,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자구를 수정하기도 했다. ‘초고본 계열’과 충남대 소장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본들은 이러한 『고정망양록』의 개작·수정 조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망양록」의 개편 여부는 필사본의 선후 관계를 판단하고 계통을 추정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7) 유만주, 『흙영』, 제16책, 계묘(1783) 11월 24일(『흙영』 5, 서울대 규장각 영인, 1997, 98쪽).

『열하피서록』의 표지에 씌어진 박규수의 글을 보면, 그가 『열하피서록』의 독자적 가치를 인식하고 『열하일기』 「피서록」과 대조하여 이를 고정(考定)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열하피서록』 중 일부 단락의 소제목은 바로 위에 ○ 표시가 있는데, 이는 『열하일기』 「피서록」에는 없는 단락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편답중원(遍踏中原)』에 있는 “原本有上下端截錄, 並考.”라는 두 주는 ‘원본’ 즉 『열하일기』 「피서록」에는 그 내용이 단락(44)와 단락(50)으로 나뉘어 수록되어 있는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은 조치를 한 사람도 아마 박규수였을 것이다.

셋째, 『열하일기』의 일부 편명 및 작품명·소제목명 등이 수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행계집』을 보면 「심세편」이 「필담의례」로 되어 있다. 즉 이 글은 애초에는 「망양록」에 부속되는 「필담의 범례」로서 집필되었던 것이다. 『잡록』(상)은 이를 「심세편」으로 고침으로써 하나의 편으로 독립시켰다. 또 『연행음청』(진)을 보면 「황도기략」의 〈풍금〉과 〈양화〉의 제목이 원래는 각각 〈천주당〉과 〈천주당화〉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잡록』(하)에서 〈야출고북구기〉 등의 기(記)가 크게 수정된 흔적이거나, 『열하일기』(정)의 「환연도중록」 일부 기사가 대폭 보완된 사실을 보면, 연암이 문예적 저작으로서 『열하일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넷째, 서학과 관련 내용이 대거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행계집』과 『잡록』(하)의 「혹정필담」에서 일부 내용이 누락되고, 『행계집』과 『잡록』(상)의 「망양록」에서도 일부 내용이 누락되었다. 이는 「혹정필담」에서 연암이 지구자전설과 천주교의 교리 및 중국에 전래된 경위 등에 관해 토론한 내용을 삭제하고, 「망양록」에서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전래한 양금과 그것이 다시 조선에 전래된 경위 등을 소개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아울러 『고정망양록』에서 본문을 대대적으로 재편집하면서 단락(1)을 없애고 단락(8)을 크게 수정한 것도 서학과 관련된 내용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잡록』(하)와 『열하일기』(정)의 「금료소초」 서문에서는 ‘서양’ 2자를 지웠으며, 『황도기략』(1)·(2)의 〈천주당〉에서도 ‘천주’와 ‘서양’라는 글자를 삭제했다. 심지어 〈천주당화〉는 전문을 삭제해 버리기도 했다. 그 이후에 필사된 이본들은 「황도기략」에서 〈천주당〉과 〈천주당화〉의 제목을 각각 〈풍금〉과 〈양화〉로 바꾸고 나서야 본문을 온전하게 수록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삭제·수정 조치는 아마도 신유사옥(辛酉邪獄)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즉, 순조 1년(1801)에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 탄압이 벌어지자, 『열하일기』 중 천주교와 관련된 내용이 물의를 빚을까 염려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잡록』(하)와 『열하일기』(정)의 「옥갑야화」 중 〈허생전〉 부분 말미에 있는 박제가의 평어에서 그의 자나 이름이 지워져 있는 것도³⁸⁾ 그가 신유사옥에 연루되었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충남대 소장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필사본들은 평어만 인용하거나 평어마저 삭제해버렸다. 신유사옥 이후에도 기해사옥(1839), 병인사옥(1866) 등 천주교 탄압이 끊이지 않았던 현실을 감안할 때, 서학과 관련된 이와 같은 삭제·수정 조치는 불가피했으리라 짐작된다.

38) 이와 함께, 박제가의 평어에서 “李氏僣說” 즉 이익의 『성호사설』이 지워진 것도, 그가 신유사옥 때 숙청된 이가환 등 남인계의 선대 학자라는 점 때문이었을 것이다.

IV. 남은 과제

단국대 연민문고 소장 필사본에 대한 이상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열하일기』 이본 연구를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초고본 계열’ 필사본들에 대한 검토에서 얻은 결론 위에서 『열하일기』 이본들을 널리 검토해 나갈 때 현전하는 수많은 이본들의 선후 관계와 개별 이본의 위상을 한층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동양문고 소장본이 과연 『열하일기』의 정본인가, 성호기념관 소장본이 전남대 소장본에 선행하는 이본인가 하는 등의 논란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종전처럼 『열하일기』의 편차나 개작 여부, 자구 수정 등에 한정하지 않고 『연암집』의 체제와 『열하일기』 각 편의 소편차 등을 포함하여 비교 기준을 다각화함으로써, 필자는 실상과 더욱 부합하도록 이본들의 계통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전하는 이본들을 ‘초고본 계열’, ‘『열하일기』 계열’, ‘『연암집』 외집 계열’, ‘『연암집』 별집 계열’로 나누어 본 필자의 가설도 앞으로 좀더 세분화하고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여지가 있음은 물론이다. 이와 아울러 이본별, 『열하일기』 각 편별, 수록 작품별로 층위를 달리하며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 개작 및 자구 수정 양상과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이본 연구가 단순한 서지적 고찰을 넘어 『열하일기』의 문예성과 사상성 해명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열하일기』는 김창업(金昌業)의 『연행일기』, 홍대용의 『연기(燕記)]와 함께 묶여 전사(傳寫)되기도 했다. 일본 동양문고 소장 『연휘(燕彙)]가 그 좋은 예로, 여기에는 『가재록(稼齋錄)]』, 『담헌록(湛軒錄)]』과 함께 『연암록(燕巖錄)]』이라 하여 『열하일기』가 포함되어 있다.³⁹⁾ 게다가 김창업·홍대용과 연암의 연행록은 모두 한글본이 있다. 그만큼 이 3종의 연행록은 세간에 연행록의 걸작으로 공인되면서 함께 전파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한글본 『열하일기』로는 현재까지 일본 동경대 소창(小倉)문고 소장본과 명시대 한국학연구소 소장본 2종이 알려져 있다. 『열하일기』 이본 연구의 성과에 의거하여 이러한 한글본들을 검토해 본다면, 그 자료적 가치를 더욱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최근 간행된 김철조의 국역 『열하일기』는 종전의 국역본들에서 잘못 번역되었던 부분을 크게 바로잡고자 한 노작이라 할 수 있다.⁴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원문이 함께 제시되지 않아, 박영철본을 대본으로 하고 여타 필사본들을 참조했다는 <일러두기>만으로는 원문에 대해 충실한 교감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다. 언젠가 현전하는 이본들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위에서 『열하일기』의 완벽한 교합본을 완성하고 그에 의거한 전문적 학술 번역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39) 연세대와 버클리대 소장 『연휘』는 『열하일기』와 『湛軒說叢』(즉 『燕行雜記』 및 『乾淨筆談』)만으로 되어 있다.

40) 김철조, 『『열하일기』 번역의 여러 문제들』,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참조.

〈참고문헌〉

- 『孔雀館集：楊梅詩話』, 단국대 연민문고 소장.
- 朴榮喆 편, 『燕巖集』, 1932.
- 『燕行陰晴』(乾), 단국대 연민문고 소장.
- 『熱河日記』(元)(亨)(利)(貞), 단국대 연민문고 소장.
- 『熱河日記』, 성호기념관 소장.
- 『熱河日記』, 전남대 소장.
- 『熱河日記』, 충남대 소장.
- 『熱河避暑錄』, 단국대 연민문고 소장.
- 『雜錄』(上)(下), 단국대 연민문고 소장.
- 『丁卯重訂燕岩集：考定忘羊錄』, 단국대 연민문고 소장.
- 『杏溪雜錄』, 단국대 연민문고 소장.
- 『杏溪集』, 단국대 연민문고 소장.
- 『黃圖紀略』(1)(2), 단국대 연민문고 소장.
- 俞晚柱, 『欽英』, 6책, 서울대 규장각 영인, 1997.
- 李德懋, 『靑莊館全書』, 민족문화추진회, 『韓國文集叢刊』 257~258, 2000.
- 강동엽, 『열하일기 연구』, 일지사, 1988.
-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0.
- 김문식,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필사본의 자료적 가치」, 『동양학』 43,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8, 159~181쪽.
- 김영진, 「조선 후기 실학파의 총서 편찬과 그 의미」, 이해순 외 공편, 『한국한문학 연구의 새 지평』, 소명출판, 2005.
- 김혈조, 「『열하일기』 번역의 여러 문제들」,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679~718쪽.
- 김혈조 역, 『열하일기』, 돌베개, 2009.
- 박철상, 「開城의 진사 崔鑣寬과 연암」, 『문헌과 해석』 32, 2005, 166~177쪽.
- 서현경, 「『열하일기』 정본의 탐색과 서술 분석」, 연세대 박사논문, 2008.
- 양승민, 「燕巖山房 校訂本 『열하일기』의 발견과 그 자료적 가치」, 한국고전문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2009. 6. 27.
- 이가원, 「『연암집』 逸書·逸文 및 부록에 대한 소고」, 『국어국문학』 39·40 함병호, 국어국문학회,

1968, 165~168쪽.

이가원 역, 『열하일기』, 민족문화추진회, 1966; 대양서적, 1973.

* 이 논문은 2010년 6월 25일에 투고되어,
2010년 7월 1일에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0년 7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0년 7월 19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Re-examination of *Yeol-ha-il-gi*'s different versions

Kim, Myounggho*

Yeol-ha-il-gi (熱河日記) is a travelogue on China written by Park Ji-won(1737-1805). Park went to China(then the Qing Dynasty)as part of Joseon's diplomatic delegation and wrote the book after travelling from Beijing to Rehe(熱河, present day Chengde). Prior to the 20th century, only manuscripts rather than printed copies of *Yeol-ha-il-gi* were available. A large number of manuscripts were produced as the book was quite popular at the time, and these manuscripts came in various types, ranging from unorganized, draft versions of the book in the early years to versions with a complete structure written relatively later.

Yeonmin Mungo(淵民文庫) of the Dankuk University Library houses old books donated by Lee Ga-won(pen name Yeonmin) whose collection includes several copies of *Yeol-ha-il-gi* manuscripts. In this paper, nine different manuscripts of *Yeol-ha-il-gi* were examined. Most of them are different versions written in the early days, and are assumed to have been written by Park himself. Such versions have great value as their texts are the closest to the original version of *Yeol-ha-il-gi*. Re-examination of these manuscripts found that the parts where the author introduced the Western academics and Catholicism were omitted. This is presumably attributable to the persecution of Catholics which took place in Joseon after the 19th century.

[Key Words] Park Ji-won, *Yeol-ha-il-gi*, Research on different versions, Yeonmin Mungo, *Yeon-haeng-eum-cheong* (燕行陰晴), *Yeol-ha-pi-seo-rok* (熱河避暑錄), *Yang-mae-shi-hwa* (楊梅詩話)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